

“글로벌 대세 아이돌? 월드투어가 우릴 키워쥬”

정규 3집 'Present:YOU'로 컴백

갯세븐



5월 월드투어를 통해 ‘글로벌 대세’를 확인한 갯세븐은 17일 발표한 3집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3집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는 모습이다.

김진환 기자 kwanghin00@donga.com

‘글로벌 대세 아이돌!’

불과 6개월 만에 입지가 확 달라졌다. 7인조 아이돌 그룹 갯세븐(JB·마크·잭슨·진영·영재·뱀뱀·유겸)은 3월 미니앨범 ‘아이즈 온 유’를 발표하고 활동할 당시만 해도 이들을 둘러싸고 “왜 체감인기는 높지 않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이 가진 실력이나 매력만큼 그 결과가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갯세븐에 대한 시각과 평가는 180도 달라졌다. 이견이 없는 “글로벌 대세 아이돌”로 급성장한 덕분이다.

갯세븐이 기존과 다른 대접과 평가를 받게 된 계기는 5월부터 진행된 월드투어다. 이들은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등 전 세계 17개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했다. 월드투어를 펼치는 도중 미국 빌보드, 피플, 포브스 등 해외 매체는 이들의 월드투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뤄 화제를 모았고, 7월 미국 폭스5 채널 토크쇼 ‘굿데이 뉴욕’에 출연해 히트곡과 춤 등을 소개했다.

확연히 달라진 인기와 관심은 이들을 더욱 ‘춤’추게 만들었다. 멤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은 또 다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다.

성공에 대한 확신도 더 커졌다. 17일 오후 발표한 3집 ‘프레젠티 : 유’(Present : YOU)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번 앨범은 완성형 앨범”이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데뷔한지 5년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긴 것도 있지만 월드투어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다. 우리는 데뷔 후 줄곧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성장이라는 게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유 있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뷔 후 지금까지 팬들이 늘어가는데 눈에 보이니까 책임감도 생겼다. 우리가 성장한 모습을 더 자신 있게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앨범 발표를 몇시간 앞두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앨범 제작발

표회를 열고 소회를 밝혔다. 아이돌 가수들이 새 앨범을 발표하기 전 쇼케이스를 열어 신곡 무대를 소개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선보이기 전 해당 제작사 측이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언론에 소개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들은 새 앨범에 타이틀곡 ‘렐러바이’를 포함해 총 16곡을 담았다. 특히 ‘렐러바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총 4개국 언어로 수록했다. “타이틀곡을 4개 언어로 만든 것도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결정하게 된 거다. 한국어로 부른 노래를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해도 좋아해주시지만, 현지 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노래를 부르면 더 좋아했다.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면서 팬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앨범 이름에 ‘프레젠티’란 단어를 넣은 것도 마찬가지다. 갯세븐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선물(Present)은 팬(you)라는 의미다.

“투어를 다니면서 곡 작업을 했다. 전 세계에 계시는 팬들이 우리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걸 느꼈다. 댓글을 통해서도 그런 반응을 알 수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정말 다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무대에서 직접 소통해보니까 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존재인지 알게 됐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앨범에 녹아 스며들었다.”

앨범에는 일곱 멤버들의 솔로곡도 하나씩 담겼다. 뮤직비디오도 멤버 전원이 부른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뿐만 아니라 일곱 멤버들의 솔로곡까지 모두 뮤직비디오를 활

영해 공개했다. 멤버들이 ‘1인 1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솔로 곡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공개하고 싶어서다. 멤버들은 한 명씩 차례로 올라와 곡에 대한 설명과 작업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JB의 ‘선라이즈’, 마크의 ‘OMW’, 잭슨의 ‘메이드 잇’, 진영의 ‘마이 유스’, 영재의 ‘혼자’, 뱀뱀의 ‘파티’, 유겸의 ‘파인’까지 멤버들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들이다. 저마다 곡에 대한 애착이 컸다.

멤버들은 “그동안 갯세븐 멤버로서의 모습만 보여줬다면 멤버 개개인의 인간적인 모습과 저마다의 음악적 성향 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활동에 집중한 다음 월드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케이팝을 많이 알려진 국민 아이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구하라, 전 남친과 진흙탕 싸움 조짐

결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와 남자친구로 알려진 헤어디자이너 A씨(27) 사이의 폭행 시비가 진흙탕 싸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17일 각각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첨예하게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양측은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구하라는 이날 “A씨에게 맞았다”며 상처 부위를 공개하고 그동안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3일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 A씨는 “일방적 폭행”이라고 맞서었다.

가수 알리·마술사 최현우 평양 간다

가수 알리와 마술사 최현우도 평양으로 날아간다. 이들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예술계 특별수행원으로 이들을 올렸다. 청와대는 17일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가수 에일리와 지코, 작곡가 김형석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알리는 4월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에 이어 다시 한 번 평양을 찾아 무대에 서게 됐다. 최현우 역시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마술 공연을 선보였다.

조규찬·양파 등 KBS 라디오 새 DJ

가수 조규찬, 양파, 유리상자의 이세준 등이 라디오 DJ로 나선다고 17일 KBS가 밝혔다. 이들은 10월1일 KBS 2라디오의 프로그램 부분 조정에 따라 DJ를 맡는다. 조규찬은 매일 오전 9시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를 진행한다. 양파는 정오에 방송하는 ‘양파의 음악정원’으로 청취자를 만난다. 유리상자 이세준은 오후 2시 ‘오늘 같은 오후엔 이세준입니다’로 음악과 청취자 사연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라디오 7080’을 진행해온 임백전은 오전 11시 ‘임백전의 골든팝스’를 맡는다. 유지원 아나운서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로 프로그램 명성을 이어간다.

트와이스 ‘티티’ 뮤비 조회수 4억 돌파

트와이스 ‘티티’ 뮤직비디오가 한국 여성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사상 최초로 4억 조회수를 돌파했다. 트와이스가 2016년 10월 24일 0시 공개한 세 번째 미니앨범 ‘트와이스스코스터:레인’ 타이틀곡 ‘티티’ 뮤직비디오는 17일 오후 1시 55분께 유튜브 조회수 4억회를 달성했다. 국내 여성 가수 최초의 기록이다. 앞서 ‘티티’ 뮤직비디오는 작년 12월 22일 한국 여성 아티스트 최초 3억 조회수를 돌파해 새 역사를 쓴 바 있다. 아울러 트와이스는 7일 최근곡 ‘댄스 더 나잇 어웨이’ 뮤직비디오가 1억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9곡 연속 1억 조회수 돌파 기록을 세우고 있다.

홍현희·파워블로거 제이슨 내달 결혼

개그우먼 홍현희(36)와 파워블로거 제이슨(본명 연제승)이 10월 결혼한다. 홍현희 소속사 싸이더스HQ는 17일 “두 사람이 10월 결혼한다. 예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송가에 따르면 홍현희와 제이슨은 팟캐스트 ‘육성사이다’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았다. 두 사람은 현재 결혼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현희는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제이슨의 좌충우돌 싱글라이프’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셀프 인테리어 등을 소개하는 제이슨은 팔로어가 15만 명에 이른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